

2015

연구보고서-29

I S S U E P A P E R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활용방안

수행과제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Ⅲ)  
: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과제책임자 • 김둘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활용방안\*

- 수행과제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Ⅲ):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 과제책임자** ▣ 김둘순 연구위원  
☎ Tel: 02-3156-7165  
✉ e-mail: kimdully@kwdimail.re.kr

### 요약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목적이 있음. 제도가 성평등 실현 효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둘순·안상수·이슬·류연규·김보미(20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른  
제도운영 전략과 관리방안 연구(Ⅲ): 성과점검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최초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참여기관 수와 과제 수는 급격하게 증가해 왔음.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법령 제·개정안, 중장기 계획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추진 과제 수가 2011년도 대비 약 5배나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졌음. 2005년에 53개 기관이 85개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92개 기관이 2,401개 과제, 2014년에는 304개 기관이 26,438개 과제를 수행하였음(여성가족부, 2015: 72).
- 그렇다면 2005년부터 제도 추진이 시작된 이래, 그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요소들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함.
-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다만, 일부 연구자가 제도운영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음(김경희 외, 2010; 오미란·김미경·박구승, 2010; 정영태·강창민·강경숙, 2010; 정형옥 외, 2010; 주혜진·박노동·심정인, 2010; 홍미영 외, 2010).
-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를 제도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환류 체계, 분석평가 추진실적, 정책·제도 개선 사례, 공무원 교육, 젠더 거버넌스 등의 요소들로 구성하고 분석하였음. 이 연구들은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개념 논의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큼.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을 제도 자체의 발전정도를 분석하는 데 한정하고 있는 제한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

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하면서 그 성과를 점검하는 것은 제도가 당초에 설정한 목표나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 정의 및 점검 지표개발 방법

####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개념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대한 개념을 행정기관 내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 정책 실현성과(outcome)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보면 ‘제도 추진 자체의 발전성과(output)’는 행정기관이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실적, 공무원 교육 인원 등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성평등 정책 실현성과(outcome)’는 제도 추진을 통해 얻은 좀 더 폭넓고 높은 정책수준으로까지 미친 영향으로서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성평등 목표 설정, 정책의 성평등한 개선,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 정책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 향상, 성별 분리된 양적·질적 자료 생산·활용 증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 간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을 의미함.

#### ▣ 성과점검 지표개발 목적과 원칙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대한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제도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음. 향후 성과점검 지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 추진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또는 행정기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관리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성과점검 지표를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였음.  
첫째, 지표에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제도가 향후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성을 담으려고 하였음. 이것은 성과점검을 현재 수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미임.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접, 간접성과를 모두 망라하여 성과를 최대한 넓게 잡으려고 하였음. 이것은 제도 추진 10년을 지나오면서 국회나 언론, 또는 제도 추진에 관여해 온 많은 이해 당사자들 스스로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구해보자는 의미임.
-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관심 있는 이해 관계자라면 누구나 활용가능 하도록 지표나 근거자료의 접근성, 측정방식을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였음.

#### ▣ 성과점검 지표개발 절차

- 1단계: 선행연구 검토
- 2단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 공무원, 연구자, 강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6월 12일 동안 면접조사
  - 조사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목적에 대한 인식, 제도 추진 성과에 대한 인식, 성과분석의 필요성 인식, 성과목표 설정, 성과점검 지표(안) 구성 체계의 적절성,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 지표에 대한 의견
-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성과점검 지표 구성 체계 초안을 마련하여 제도 추진을 담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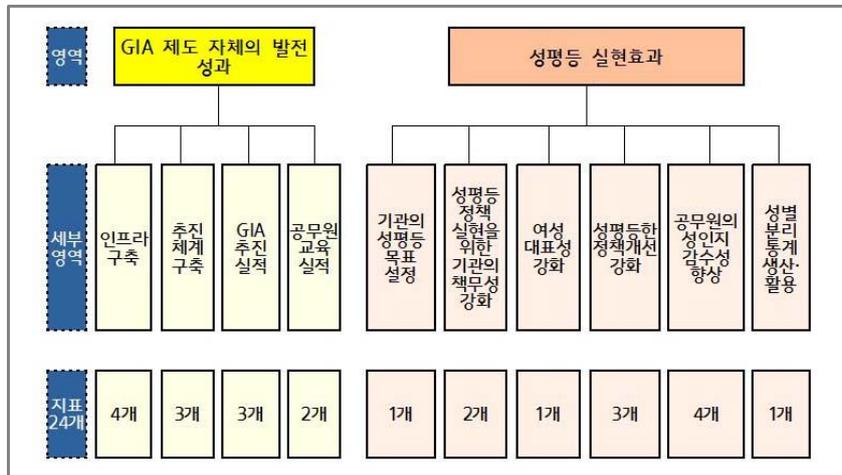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컨설턴트, 연구자 등 8명  
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수정보완

● 4단계: 성과 시범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 성과 시범분석: 국방부, 농촌진흥청,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 설문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500명

■ 성과점검 지표 초안 개발

- 공공정책에 대한 성과점검 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및 초점 집단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서 성과점검 지표 초안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시범분석하고 설문조사지 개발에 활용할 지표 초안으로 2개 영역, 10개 세부영역, 24개 지표를 마련함([그림 1]). 영역 1과 영역 2의 구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해서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1차 정책산출(output) 성과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정책효과인 2차 정책 성과(outcome)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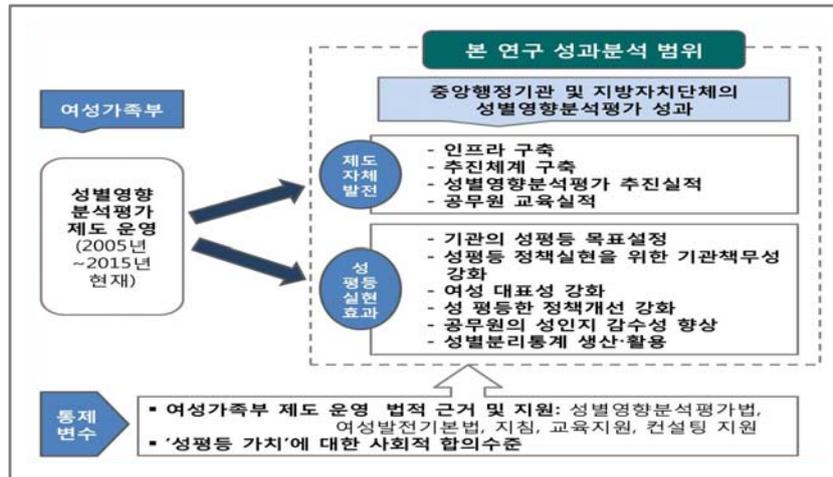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점검 지표 초안 구성 체계

##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 ▣ 성과 시범분석 목적 및 분석모형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의 성과를 시범 분석하였음. 분석목적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초안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한지, 성과분석 대상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 것임.
- 성과분석 시범대상 기관은 국방부, 농촌진흥청,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최종 분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음. 그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비교적 적극적이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협조가 가능한 기관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음.
- 분석방법은 성과점검 지표초안을 활용하였음.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해당 기관의 관련 문헌자료 수집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및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사업 수혜자 면접조사, 여성단체 관계자, 컨설턴트 등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음.
- 성과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 시범분석 모형

■ 성과 시범분석 결과

■ 국방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국방부는 2005년부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으며,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주로 보건정책, 전직 지원정책, 인사관리, 군복보급정책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 중 일부 사업들의 경우 실제 사업개선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모범이 될 수 있을만한 정책 개선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국방부의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만한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여성가족부 소관 하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요하게는 제도 운영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의 적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가들의 지원 역량이 국방부의 정책 개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내고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방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해 얻게 된 성평등 실현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방부의 성과관리 지표에 제도추진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제도추진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과 별도로 국방부 내에서 우수 사업 수행과제 2개에 대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것은 제도 참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 표창이 제도 운영의 수월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방부는 또한 성평등한 신규정책을 개발하여 여군 복지 향상 및 여군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음. 이런 정책 개선 추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음. 국방부에서 우수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은 사업담당자들이 처음에는 제도 추진에 저항적이다가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책 개선 의견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하게 되면 이를 실제 반영하여 개선하는데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임.

■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농촌진흥청은 2005년 제도시행 이래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온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임. 2005년 이래 매년 사업 분석평가 추진 과제 수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평균 과제수보다 약 2배 많은 수를 보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등 선도적인 제도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기관임.
-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촌진흥청은 기관담당부서의 위상이 높으며, 2005년부터 현재 까지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리고 전문역량을 갖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기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 및 기관과의 신뢰성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의 추진체계는 기관담당부서와 컨설턴트 두 주체의 적극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요인들이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제도 추진 적극성과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매년 연구예산을 확보하여 젠더전문가에게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양적·질적 자료를 공무원의 분석평가서 작성에 활용하여 충실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또한 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개선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적극적으로 개선 이행을 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본 제도 추진을 통해 거둔 성평등 실현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서 성평등 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 책무성 관련하여 부서별 성과관리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우수 부서 또는 우수사례 공무원을 선정·시상하는 체계는 없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기관 또는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경우 개인상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기록되고, 인사 승진 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 외에도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제고 효과를 보면 여성대표성 강화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의 3개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평가를 실시한 당해 연도 외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성별 요구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정책 개선 책무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선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는 2005년 제도시행 이래 공무원 교육확대,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제도 지원 역량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해 왔음.
-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부가 권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담당부서와 인천성별분석평가센터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평구는 별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하는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2015년에는 제도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청의 전 부서장을 각 부서의 분석평가책임관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개정하였음. 또한 동 조례에는 제도 추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 주류화 효과와 관련해서 부평구는 구정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부평구 지속가능 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중점 여성정책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단위과제에서 ‘성 주류화 정착을 위한 정착기반 확립’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부평구는 성평등 정책 실현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모든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 교육 참여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부평구의 대표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과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인력의 지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부평구 의회 의원의 관심 제고, 부평구 부서장의 성 주류화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을 만들어내는 동인이 되었음.

#### ■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

●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제도 참여 과

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그 결과 2014년 전라남도  
도와 소속 시군에서는 총 1,92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참여 수준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를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는 2012년 전남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음. 그러나 성별분리자료의 생산 및 정책 개선 이행점검 등 분석평가 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까지 조례 내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특히 정부합동평가를 고려해 기관 내부 성과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도 분청과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우수부서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 주류화 효과와 관련해서 주요한 성과를 살펴보면 기관의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여성참여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제고, 성평등한 사업 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 개선 사례인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마을공동급식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성정책 추진부서, 해당사업 부서, 시민참여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토대로 만족도 높은 사업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여러 주체가 함께 성평등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한 정책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이상으로 성과 시범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성과점검 지표초안의 적절성에 대한 시사점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

하기에 적절한 지표가 있었음.

- 둘째,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와 전라남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시범분석 할 때 사용한 ‘기초수준의 성과’와 ‘정착수준의 성과’로 지표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는 시사점을 얻었음.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는 각 지표에 대해 이를 다시 기초수준의 성과가 무엇인지, 정착수준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수준 구분은 최종적인 성과점검 지표개발 결과를 제시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인 각 행정기관의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제도 운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발견되었음. 예를 들면 인프라 구축 세부영역 중에서 ‘1-3.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지원 인력의 인적역량 정도’ 지표를 들 수 있음. 이 지표는 최종 성과점검 지표에서 제외 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체계 의견조사 결과

##### ■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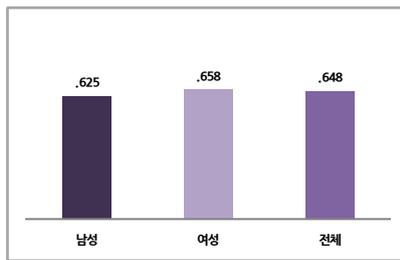
- 성과점검 지표 초안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의 방향성과 성과산출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표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무원 및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 ■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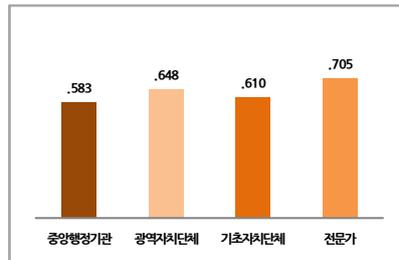
-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성과점검 지표체계(안)에 대해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대체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표 영역구분 및 지표체계의 적절성
  - 성과점검 지표 구성을 ‘각 행정기관에 제도 자체가 안정적으로 잘 구축되어 원활히 작동하는 것’과 ‘제도 도입에 따른 성평등 실현과 정책 개선 효과’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설문조사하였음. 그 결과, 집단별로 산출된 평균값에 대해서 얻은 지수 값은 .648이었음. 이는 1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체로 영역구분이 적절하다는 평가임.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 첫째, 성별로 지수 값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영역구분의 적절성에 대해 다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그림 3]).
- 둘째, 소속기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그림 4]).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적절성을 .705로 비교적 높게 보고 있는데 비해서 중앙부처, 광역,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그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음.



[그림 3] 지표체계(안) 영역구분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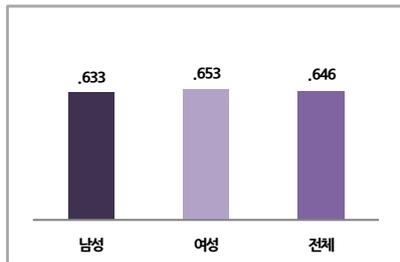


[그림 4] 지표체계(안) 영역구분에 대한 적절성 평가의 소속기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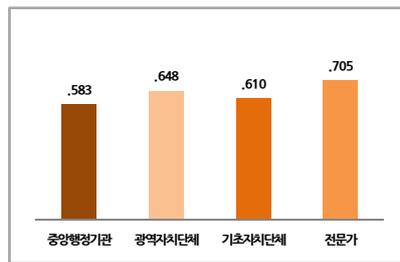
● 지표 구성 체계(안)의 적절성

- 전체 응답자가 평가한 지표 구성 체계의 적절성 지수는 .646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임.
- 첫째,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가 여성에 비해서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그림 5]).
- 둘째, 소속기관별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간 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광역, 기초, 중앙부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의 순으로 낮았음. 전문가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는 적절성에 대해 유의할 만큼 더 높게 평가하였음([그림 6]).



[그림 5] 지표 구성 체계(안)의 적절성 평가 성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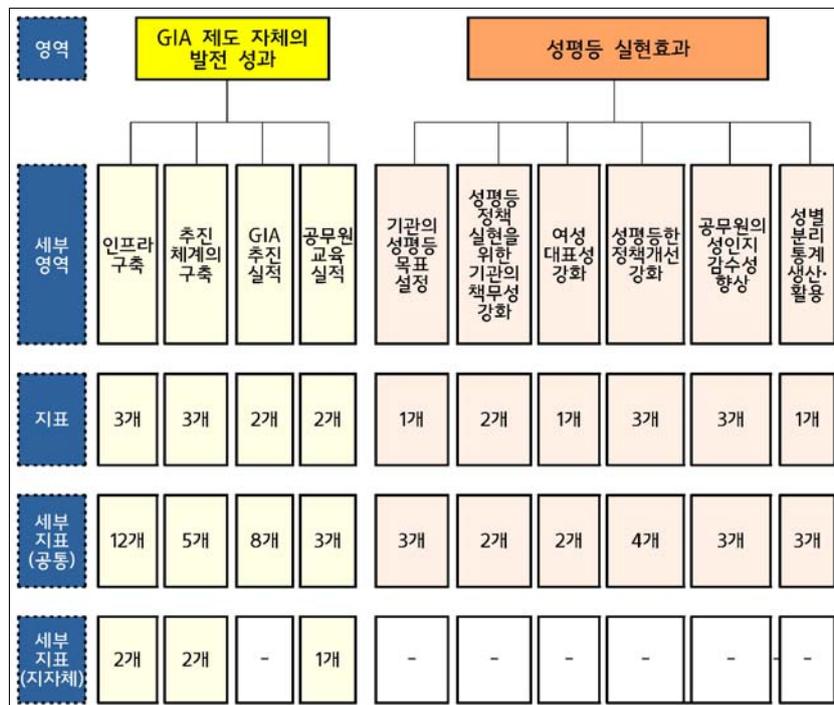
[그림 6] 지표 구성 체계(안) 구성의 적절성 평가 소속기관별 비교

- 공무원과 전문가 간에 일부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공무원은 행정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 경향이 높아, 중장기적인 성과점검에 초점을 맞춘 영역2 지표에 대해서는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한 반면에 전문가들은 제도 발전과 성평등 실현지표(영역2)에 좀 더 높은 중요성을 두는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나 관점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종합지수값에 근거한 순위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들을 선정하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의 격차가 비교적 큰 지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하여 선정될 필요가 있음.

### 3 정책제언

#### □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 결과 그 구성 체계를 간략히 그림으로 보면 [그림 7]과 같음. 구성 체계는 2개 영역⇒ 10개 세부 영역⇒ 21개 지표⇒ 45개 공통 세부지표, 5개 지자체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음.1) 초안과 비교했을 때 최종 지표에서는 지표 3개와 세부지표 11개가 제외되었음.



[그림 7]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구성 체계

- 1) 성과점검 지표 세부 구성 체계와 특성에 대한 설명은 본 보고서 VI장 결론 참고.

■ 성과점검 지표 활용 방향

● 성과점검 지표의 활용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활용주체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총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 연구자, 일반시민이나 모니터링단 등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성과점검 목적에 따라서 지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영역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자체의 발전성과’와 영역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효과’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셋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제도 성과점검 주기는 점검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약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책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함.
-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과점검 지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성과 시범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정책과제

■ 국방부

● 향후 국방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석평가책임관의 직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관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만 전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거나 자체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수혜자의 성별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군 보건통계는 2010년부터 성별 분리통계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기관의 주요 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활용 정도가 미미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기관 통계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첫째, 제도를 좀 더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과제 발굴을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음. 1부서 1사업과제 추진을 원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신규과제 발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
  - 셋째, 농촌진흥청 내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가 우수한 부서나 개별공무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는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만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 배치가 필요함.
  - 둘째,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젠더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새로운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향후 제도의 성평등 실현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가 있음.
  - 첫째, 기관담당부서 내 전담인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에 젠더 전문가 인력보강이 필요함.
  -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는 성평등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까지 모범적인 성과 사례로 보이고 있는 지역 시민들과의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4 기대효과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점검 지표 개발·제공.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추진 성과 시범분석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각 행정기관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참고자료



- 김경희 외. 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5.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오미란·김미경·박구승. 2010.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 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형옥 외. 2010.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주혜진·박노동·심정인. 2010.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미영 외. 2010.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 국방부(국방여성정책과), 농촌진흥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  
인천광역시(여성정책과), 전라남도(여성가족정책관)